

조선 후기 복식에 나타난 합봉(合縫)현상에 관한 연구

- 남자 공복(公服)과 여자 예복(禮服)을 중심으로 -

구 남 옥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강사

A Study on the Practice of *Hapbong* fou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Men's Official Uniforms & Women's Formal Wear -

Nam-Ok Ku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투고일: 2007. 6. 25, 심사(수정)일: 2008. 3. 31, 게재확정일: 2008. 9. 15)

ABSTRACT

One of features of fashion in Joseon period is culture of overlapping of several clothes. This culture appeared with *Hapbong*(合縫:sewing of several clothes as one) at late Joseon period and developed into simpler and more practical fashion culture.

Hapbong is mainly identified at men's official uniform such as *Jaebok*(祭服), *Jobok*(朝服), *Kwanbok*(官服), *Gugunbok*(具軍服), and women's formal dress such as *Wonsam*(圓衫) and *Dangeui*(唐衣) which formed several clothes get to be a set.

Such fashion was designed to maintain dignity and power while simple to wear. And It has the trace of overlapping visually on the collar, sleeve, breast-tie and others. *Hapbong* is attributable to thoughts of practical science, post-toadyism, modernization, renovated the system of clothing, and advanced sewing technique.

Key words: sewing(바느질), *Jaebok*(제복), *Jobok*(조복), *Kwanbok*(관복), *Gugunbok*(구군복), *Wonsam*(원삼), *Dangeui*(당의)

I. 서론

복식은 보호(保護)·수치(羞恥)·정숙(貞淑)·장식(裝飾)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었으며 역사적으로 경제력·권력·신분 등을 상징하는 한 방법이 되었다. 계급이 뚜렷한 사회일수록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에 복식은 색·소재·형태·장신구 등에서 격차가 분명해졌으며 민족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종류의 복식을 겹쳐 착용하는 중착(重着)현상은 단순히 보온이 목적에서가 아니라 높은 신분을 대변하거나 특별한 예복의 상징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복식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 점의 옷을 겹쳐 입는 중착문화라 할 수 있다. 남자의 복식의 경우 포를 여러 겹 입어 예와 품격을 갖추고자 하는 풍습이 지배적이었다. 여자의 복식도 저고리는 삼작이라 하여 세 점을 겹쳐 입고, 속옷의 경우도 속속곳·바지·단속곳 등을 함께 입는 등 여러 점을 겹쳐 한 벌의 옷처럼 착용하였다.

그런데 현존하는 복식유물 중 두세 점의 복식을 합봉(合縫)하여 한 벌로 제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합봉이란 겹쳐 입던 복식을 바느질하여 한 벌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합봉된 복식의 특징은 겹쳐 입었을 때 표현되었던 복식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한 벌을 입으면서 여러 벌 착용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의(壽衣)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복식의 일부분을 시침하여 고정시킨 것은 합봉(合縫) 취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봉 현상은 주로 남자의 공복(公服)과 여자의 예복(禮服)에서 나타났으며,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후기의 유물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착문화가 있던 남자의 공복과 여자의 예복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조선 후기에 나타난 합봉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도록과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 박물관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¹⁾ 연구방법은 시대별 복식 유물을 정리하므로 중착에서 합봉으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현상 나타나게 된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도식화하

므로 결론지었다.

II. 합봉(合縫) 현상이 나타난 복식의 종류

조선 후기 합봉 현상이 나타난 복식은 공복(公服)인 제복(祭服), 조복(朝服), 관복(官服), 구군복(具軍服)과 여자 예복인 원삼(圓衫), 당의(唐衣)가 있다.

1. 제복(祭服)

제복은 왕과 왕비의 위패(位牌)를 모신 종묘에 봉사(奉祀)한 때 문무백관이 착용한 예복이다. 제복은 양관(梁冠), 청초의(靑綃衣), 적초상(赤綃裳), 백초중단(白綃中單), 폐슬(蔽膝), 대대(大帶), 혁대(革帶), 패옥(佩玉), 후수(後繡), 말(襪), 화(靴), 홀(笏)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제는 조복과 동일하나 화려한 조복의 복색과는 달리 흑백의 색을 주로 사용한 것과 깃에 방심곡령(方心曲領)을 더한 것 등이 차이가 있다. 조선 초에는 청초의(靑綃衣)에 백초중단에 흑선을 둘러 착용하였으며 국말에는 흑단령에 방심곡령을 착용하기도 하였다.²⁾

〈표 1〉은 제복 유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총 19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모두 조선 말기의 제복이다. 착용자를 알 수 없는 유물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제복이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드물었기 때문인 것 같다. 〈표 1-2,17〉을 제외한 모든 유물에 방심곡령이 합봉되어 있으며, 폐슬 또한 〈표 1-1,3,7, 9,10,13, 14,16〉을 제외한 대부분이 의에 합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서(禮書)나 위궤도설(儀軌圖說) 등을 통해 고찰해보면³⁾ 방심곡령은 별도로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유물 〈표 1-2〉과 같이 방심곡령은 의에 별도로 첨가되어 벗으면 깃만 따로 분리 가능하다.⁴⁾ 그러나 조사한 유물 중 대다수가 방심곡령이 깃에 일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부착되어 단령 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표 1-7,19〉의 경우는 동정 없이 깃을 흰색 옷감으로 만들고 그 위에 방심곡령을 덧대

〈표 1〉 제복 유물

번호	사 진	방십 공명	폐습	대대	착용자	생몰년도	소 장 처	출 처
1		○	×	×	미상	?	고대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17
2		●	○	×	미상	?	고대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14
3		○	×	×	정온후손	?1569~1641	정우순 소장	중요민속자료 제218호
4		○	○	×	정원용	1783~1873	국립민속박물관	중요민속자료 제13호
5		○	○	×	홍완군	1815~1848	숙대박물관	중요민속자료 제121호
6		○	○	×	김병기	1818~1875	고대박물관	중요민속자료 제6-5호
7		○	×	×	미상	185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8		○	○	×	현백운	185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9		○	×	×	미상	186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10		○	×	×	미상	186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11		○	○	×	미상	186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12		○	○	×	미상	187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13		○	×	×	미상	187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14		○	×	×	김현순	187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15		○	○	×	미상	188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16		○	×	×	이도재	1880	석주선기념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p. 108
17		×	○	×	미상	19세기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http://www.emuseum.go.kr/pages/portal/search/full.jsp?dbNoArr=3&docNo=00094791
18		○	○	×	장영직	1861-1944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대관, p. 222
19		○	○	○	미상	개화기	고대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 16 재봉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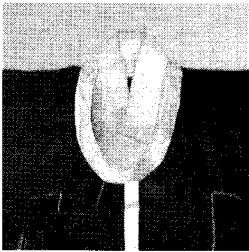
※ ○: 부착, ●: 탈착

어 고정시킨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⁵⁾

폐슬은 조복과 제복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본래 무릎을 가리는 용도였다. 본래 별도로 구성되어 현대에 연결하여 착용되어 폐슬(蔽膝)이라는 명명되었다⁶⁾. 그러던 것이 가슴부위로 착용위치의 변화가 있었다. 고종 25년(1878) 폐슬은 의(衣)에 달아 착용하게 되어 폐흉(蔽胸)이 되었다⁷⁾. 본래 폐슬에 고리가 달려있어<그림 2>⁸⁾ 분리가 가능하였으나 현존하는 유물의 대다수가 의에 바느질로 고정되어 있다.

특히 <표 1-19>의 제복은 개화기 이후 착용된 조선조 제복(祭服)의 마지막 형제(形制)라 할 수 있다. 일부 바느질에 재봉틀을 사용하였으며 방심곡령과 폐슬 뿐 아니라 대대(大帶)도 시침질로 의에 고정시키는 등⁹⁾ 매우 진보적으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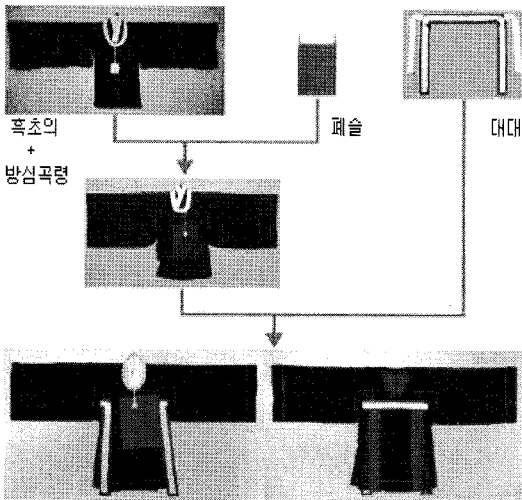
제복의 합봉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1> 표 1-7 세부



<그림 2> 심동신 폐슬 명선 중. (2004), p. 81.



<그림 3> 제복의 합봉과정

2. 조복(朝服)

조복은 문무백관이 대사·원단·동지·경축일·조칙을 반포할 때와 진표할 때 입었던 관복으로 가장 화려하며 금관과 같이 착용한다고 하여 금관조복이라고도 한다. 조복은 양관(梁冠), 적초의(赤綃衣)·적초상(赤綃裳), 백초중단(白綃中單), 폐슬(蔽膝), 대대(大帶), 혁대(革帶), 패옥(佩玉), 후수(後繡), 말(襪), 화(靴), 홀(笏), 백말(白襪), 흑리(黑履), 각잠(角簪)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계에 따라 차등¹⁰⁾을 두었다.

조복제도는 고종 의제개혁에도 예외규정으로 들 만큼 최고의 예복으로서 전통을 고수하였으며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3월 서양식으로 공사(公私)예복이 개정될 때까지 근 500년간 시행되었다.

<표 2>는 조복 유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총 14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제복의 경우와 같이 착용자를 알 수 없는 유물이 많았다. 가장 오래된 것은 최근 발표된 신경유(1581-1633)의 조복이다. 의·상·폐슬·후수·대대 등이 발굴되었으며 깃의 형태가 다른 조복과 달리 칼깃인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조복 형태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밀창군(1677-1746) 유물과¹¹⁾ 여주향토사 박물관 소장 출토유물¹²⁾,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¹³⁾, 심동신(1824-?)¹⁴⁾, 흥완군(1815-1848) 유물¹⁵⁾ 등이 일습에 가깝게 갖추어 전해지고 있다.

조복도 본래 폐슬이 분리되나 제복의 경우와 같이 폐슬을 가슴에 바느질로 고정한 유물이 6점 전해지고 있다.<표 2-5,7,8,11,12,13> 이들 대부분이 19세기 이후의 유물들이다.

매우 독특하게 폐슬 이외에 상의 의 또는 중단에 합봉된 유물도 전해지고 있다. <그림 4>¹⁶⁾는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소장된 조복의 중단이다. 소매를 생략하였으며 상은 앞·뒤를 따로 만들어 중단의 앞뒤에 부착하였다. 또한 <표 2-12>의 경우 상을 착용했을 때 겹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제작하여 의에 붙였다. <그림 5>¹⁷⁾

흥완군(1815-1849)의 조복인 <표 2-7>은 간편화된 조복의 대표적 형태로 의, 폐슬, 중단, 상을 합쳐서 한 벌로 구성하였다. 중단은 <그림 4>처럼 소매가 생

〈표 2〉 조복 유물

번호	사 진	패슬	상	중단	착용자	생몰년도	소장처	출처
1		●	●	●	신경유	1581-1633	석주선기념박물관	정사공신 신경유공묘 출토 복식, p. 20
2		●	●	●	밀창군	1677-1746	석주선기념박물관	명선 중, pp. 78-79
3		●	●	●	이억정	1699-1782	석주선기념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 p. 91
4		●	●	●	미상	?	여주향토사 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 p. 92
5		○	×	×	미상	?	이대박물관소장	문화재대관, p. 179
6		×	●	●	정 온	?1569~1641	정우순 소장	중요민속자료 제218호
7		○	○	○	홍완군	1815~1848	숙대박물관	문화재대관, pp. 87-9
8		○	×	×	김병기	1818~1875	고대박물관	문화재대관, p. 29
9		●	×	●	김병국	1818-1906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보고서, p. 175
10		?	●	●	심동신	1824?	석주선기념박물관	명선 중, p. 80
11		○	×	×	장영직	1861-1944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대관, p. 219
12		○	○	×	미상	1870	석주선기념박물관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 p. 107
13		○	○	?	미상	조선후기	고려대학교 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 6
14		×	×	×	미상	조선후기	고려대학교 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 8

※ ○ : 부착 ● : 탈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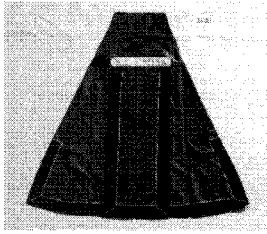
략되었으며 상이 부착되었다. 중단과 의는 어깨부분을 봉제하여 고정시켜 중단과 의, 상을 한 벌의 겹옷으로 만들어 조복의 착용을 간편하게 하였다. 국말에는 조복 착용 시 여러 의복을 겹쳐 입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복의 착장방법의 간소화 경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그림 6〉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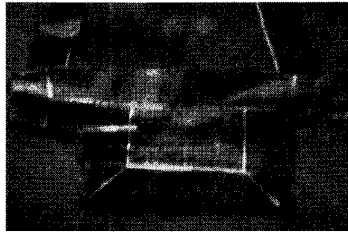
조복의 합봉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7〉과 같다.

3. 관복(官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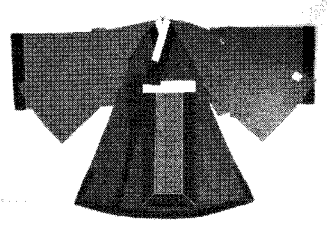
관복(官服)은 조선시대 공복의 하나로 상복(常服)이라고도 한다. 사모(紗帽)·흑단령(黑團領)·홍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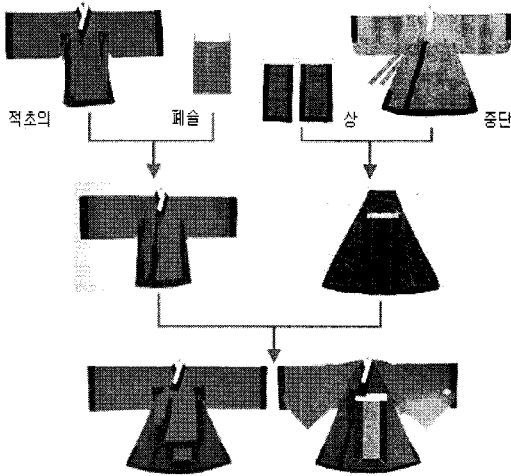
〈그림 4〉 중단
석주선기념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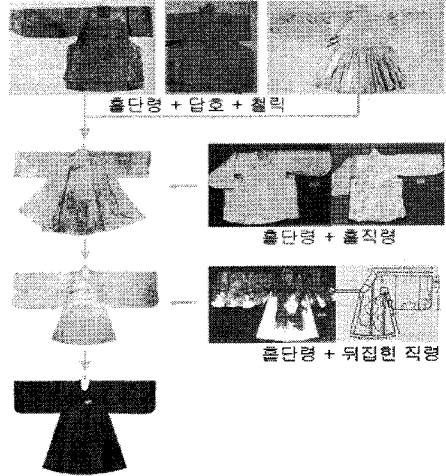
〈그림 5〉 표 2-12 세부
석주선기념박물관소장



〈그림 6〉 흥완군 조복
문화재단관. (2006), p. 188



〈그림 7〉 조복의 합봉 과정



〈그림 8〉 단령의 합봉 과정

(胸背)·띠[帶]·패수(牌綬)·화(靴)를 갖추어서 입어야 하고, 시복(時服)으로는 홍단령(紅團領)·띠·패수·목화(木靴)를 착용하였다.

관복인 단령의 유물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단령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홑으로 만들어 답호와 철릭을 내작(內作)으로 함께 착용하였다.〈표 3-1~16〉 기록¹⁹⁾과 임진왜란 전까지 단령과 함께 답호와 철릭이 같이 출토된 것을 통해 단령 속에 넓은 동정이 달린 답호를 입어 바깥 모양새를 단정하게 하였고 그 속에 철릭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과 함께 직령도 출토되었으나 좋은 재료를 사용한 점과 관복의 반침으로 하기에 동정 나비가 좁은 점²⁰⁾, 그리고 당시는 천인과 서민의 관복으로, 양반

층의 연거복²¹⁾으로 착용되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단령의 내작이 아닌 독립된 포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후로는 반수(半袖) 답호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령이 단령의 내작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령을 단령의 내작용으로 제작하여 단령 속에 끼운 후 깃이나 섯, 도련 등에서 정근 형식을 하고 있었다.〈표 3-17~22, 24~26, 28~32〉 특히 김확(1572-1633)의 유물 중에 단령과는 별도로 발견된 직령의 경우도 깃 나비와 비슷한 동정이 있어 내작으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²²⁾

그 중 탐릉군(1636-1731)²³⁾과, 홍우협(1655-1691), 의원군(1661-1722), 홍감보(1699-1763)의 단령의 경

<표 3> 단령 직령 답호 철릭의 유물

번호	착용자	생몰년도	단령	답호	철릭	직령	특 징	출 처
1	변 수	1431-1524	2	5	8		단령 홑옷 답호·철릭 같이 출토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	김홍조	1462-1528	7	11	12	1		판결사김홍조선생합장묘발굴조사 보고서
3	고 운	1479-1530	1	3	6	1		하천 고운 출토유물
4	정 운	1481-1538	2	2	7	1		한국복식 제16호
5	정응두	1508-1572	1	2	23	2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6	홍계강	1550년대	3	2	5	1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7	신언식	1519-1582	1		3	1		한국복식 제17호
8	신여관	1530-?	1	3	10	3		한국복식 제17호
9	벽진 이	?-1585	1			1	홀단령과 직령 출토 직령 깃 나비가 4cm로 내작이 아닌 듯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10	이언웅	1580년대	1		1	1	파손이 심함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11	정휴복	1529-1604	1	1	4	63	단령 홑옷 답호·철릭 같이 출토	한국복식 제7호
12	김 위	?-1598	1		3	3	단령의 내작 직령, 직령의 동정 넓은	문화재대관
13	조 경	1541-1609	1	2	7		단령 홑옷, 답호·철릭 같이 출토	조경묘출토유물의
14	심수륜	1543-1589	1	1	9	3	단령 홑옷, 답호·철릭 같이 출토	심수륜출토복식
15	이응태	1556-1586	1		7	5		안동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보고서
16	진주류씨	16세기 중후반	1		6	1	홀단령, 겹직령 직령 깃 나비가 4cm로 내작이 아닌 듯	진주류씨합장묘출토복식
17	고여우	?1570-1640	2		2	3	홀단령, 홑직령	한국복식 제15호
18	김 확	1572-1633	2		9	1	단령·직령 각각 제작, 직령 내작용	김확출토복식
19	정양우	1574-1647	1		2		단령·직령 각각 제작	한국복식 제8호
20	박신용	1575-1627	1		3		홀단령	문화재대관
21	최원립	1618-1690	1		1		단령·직령 각각 제작, 중간중간 징금	17세기 조선 부관의 차림새
22	김덕원	1634-1704	1		1		단령·직령 각각 제작	한국전통복식사연구
23	최 숙	1636-1698	3		3		겹옷	한국복식 제14호
24	탐릉군	1636-1731	3		2		단령·직령 각각 제작 솔기가 안으로 가도록 징금	탐릉군 수의 에 관한 소고 명선 중
25	홍우협	1655-1691	1		2	1	직령이 단령의 내작으로 뒤집혀 끼워 져서 몇 땀 징금	홍우협묘출토 17세기복식논고
26	의원군	1661-1722	1				직령이 단령의 내작으로 뒤집혀 끼워 져서 몇 땀 징금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발굴보고서
27	이태근	1672-1763	1				겹옷	한국복식 제6호
28	밀창군	1677-1746	4		1		단령·직령 각각 제작, 2점 끼워 고정	한국복식 제22호
29	홍감보	1699-1763	1		1	1	단령은 깃만 확인, 겹 직령은 단령의 받침옷으로 뒤집혀 바 느질	한국복식 제13호
30	이익정	1699-1782	3				겉안 각각 제작, 둘레를 겹에서 징금	한국복식 제19호
31	연령군	숙종조	1			1	독립된 2점의 옷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32	김기성	1754-1821	7		2		단령·직령이 깃 에서 고정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33	홍의준	1761-1841	1		2		겹옷	한국복식 제12호
34	정원용	1783-1873	1				단령 안에 직령 깃 부착	문화재대관
35	홍완군	1815-1845	14				겹옷	문화재대관
36	김병국	1818-1906	1				겹옷, 4점 바느질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보고서
37	대원군	1820-1898	1				겹옷	문화재대관

우 내작 직령의 솔기가 겹으로 뒤집혀 있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단령이 겹옷으로 변하기 전의 과도기적 연상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단령은 직령과 합봉되어 겹옷으로 제작되었다.<표 3-23,27,33~37> 각각 솔기를 연결한 후 수구, 배래와 소매에서 겹·안을 붙여 겹옷을 만든 다음, 겹깃은 단령으로 안깃은 직령으로 만들어 달았으며 겹감의 무와 안감의 무를 합하여 겹감의 등 뒤에 고정시켰다. 18세기 이후 단령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있었고 현재 혼례복으로 착용되는 단령까지 이어졌다.

단령의 합봉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8>과 같다.

4. 구군복(具軍服)

구군복은 조선시대 무관의 최고 예장복이며 구기복(具器服)이라고도 한다. 왕, 문무백관들이 모두 몸을 경편하게 하기 위해 입었던 복장으로 행행(行幸)이나 호위복,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국난을 당했을 때 입었던 의복이다. 양난이후 용복(戎服)인 철릭을 간소화하여 소매가 좁은 협수(夾袖, 동달이)를 입어 민첩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한 동시에 그

위에 다시 전복(戰服)을 덧입어 위엄을 갖추게 한 것이다. 구군복은 고종 32년(1895) 을미개혁에 의해서구식 신식군복에 의한 '육군복장규칙'이 반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구군복은 전립(戰笠), 이엄(耳掩), 동달이, 전복(戰服), 목화(木靴)에 전대(戰帶)를 띠고 병부(兵符)를 차고 환도(環刀), 통개(筒筒), 등책(藤策)을 갖추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동달이는 동다리(同多里)라고도 하는데, 소매[동]에 다른 색을 덧붙여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수의(袖衣)라고도 한다. 길과 같은 색의 소매 위에 홍색 소매를 덧붙여 만들어서 겹수(袂袖)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상을 당했을 때 피를 보이지 않게 하며 덧댄 것을 뜯어내 붕대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²⁴⁾

현존하는 유물을 보면 대부분 황색 길에 홍색의 소매가 달렸으나, 흑색 길에 홍색²⁵⁾ 또는 황색 소매가 달린 것²⁶⁾과 녹색 길에 홍색 소매가 달린 것²⁷⁾도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회화²⁸⁾를 통해 복색을 살펴보면 소매는 대부분 홍색이었으나 길의 색이 남, 주황, 황, 녹, 흑색 등 매우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끝동 부분만 홍색인 것, 소매부리에서 팔꿈치까

<표 4> 구군복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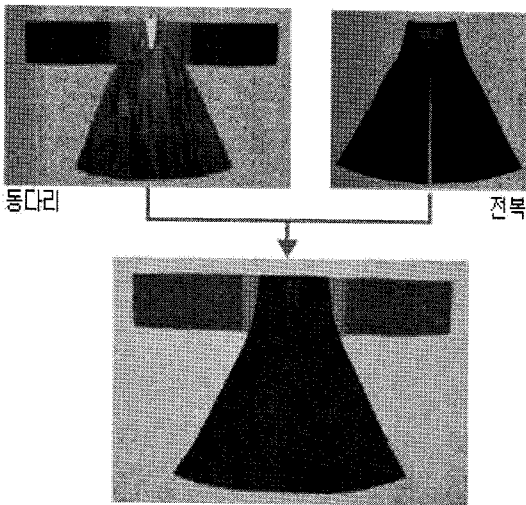
번호	사건	착용자	생몰년도	소장처	출처
1		정원용	1783-1873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대관 p. 137
2		김병국	1818-1906	은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보고서 p. 186
3		김병국	1818-1906	은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보고서 p. 187
4		윤용구	1853~1937	고려대학교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 56
5		윤용구	1853~1937	고려대학교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 58
6		김성규	1863~1936	목포자연사박물관	http://www.emuseum.go.kr/pages/portal/search/full.jsp?dbNoArr=3&docNo=00103230

지 홍색인 것, 소매부리에서 진동선까지 홍색인 것 등 다양하였다.

동달이와 협수(夾袖)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협수는 소매통이 좁은 군복포(軍服袍)의 총칭이며 동달이는 협수의 한 종류이다. 여러 종류의 협수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동달이였으므로 협수가 곧 동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협수의 형태는 지금의 두루마기와 비슷하나, 뒷길의 중심선과 무 양옆이 트인 것과 트이지 않은 것이 있다.²⁹⁾

전복(戰服)은 조선시대 무관의 군복이다. 답호, 작자(縛子), 더그레, 호의(號衣)라고도 하였는데 소매와 싹이 없고 양옆 아랫부분과 등술기를 허리에서부터 튼 옷이다. 고종 21년 의제를 간소화함에 따라 답호와 전복을 동일하게 착용하였으며³⁰⁾ 두루마기[周衣]와 함께 문무 관리들의 상복으로 착용되었다.

이와 같이 동달이와 전복을 겹쳐 입던 구군복의 착장방법이 조선 말기에 이르러 변화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복에 동다리의 소매 만 달아 합봉하므로 한 점으로 마치 두 점을 겹쳐 입은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홉으로 만들어서 가볍고 민첩한 장점도 있다.



<그림 9> 구군복의 합봉 과정

구군복의 합봉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9>와 같다.

5. 원삼(圓衫)

원삼은 조선시대 때 여자 예복으로, 깃 모양이 둥근 것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원삼은 전단후장(前短後長)에, 여밈 없는 대금(對衿)식이고 길의 양 옆이 터져 있으며 넓은 색동소매 끝에 한삼이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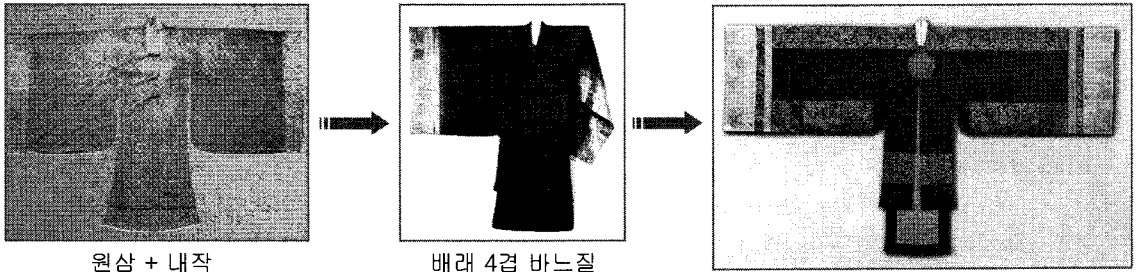
원삼은 왕비 이하 내·외명부들의 예복으로, 왕비·세자빈·세손빈은 소례복으로 착용하였고 대군부인 이하 상궁과 관직자 부인은 대례복으로 착용하였다. 원삼의 색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황후는 황원삼, 왕비는 홍원삼, 비빈은 자적원삼, 공주·옹주·반가부녀는 초록원삼을 입었다. 지위고하에 따라 금박의 종류와 문양에 차등을 두었으며 보와 흥배의 문양도 차이가 있었다. 서민의 경우 혼례 때에만 원삼을 입을 수 있었는데, 크기와 색동의 수가 궁중원삼과 달랐으며 금박을 찍을 수 없었다.

원삼의 경우 조선 초기 유물이 없는데다 원삼의 유래에 대한 설도 분분하기 때문에 유물이 전해지고 있는 17세기부터 고찰하였다.<표 5>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원삼은 홉으로 두 점을 각각 제작하여 겹옷에 내작을 끼워 넣고 도련부분을 정군 형식으로 만들었다.<표 5-1.4~8,13,14~16> 그렇기 때문에 도련에 덴 선이 겹·안 모두 둘러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표 5-3>의 이단하 부인의 원삼(1680)은 시대는 앞서지만 배래를 4겹으로 바느질한 조선 후기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이는 후손들이 보수·수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³¹⁾이므로 본래에는 겹과 안을 따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길은 선을 각각 대어 따로 만든 후 배래만 4겹으로 바느질한 과도기적 방식이 생겼고,<표 5-9, 10,17> 조선 말에 이르러 합봉하여 겹옷으로 제작하였다.<표 5-11,12,18> 도련의 선을 안감에만 대었고 단령과 같이 겹옷에 두개의 깃을 달았다. 겹에는 원삼깃라고 하는 대금형 깃이, 안에는 직령의 깃이 달려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표 5-7,11>과 같이 원삼깃 하나만 달고 동정을 넓게 단, 약식으로 바느질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원삼의 합봉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원삼 합봉 과정

6. 당의(唐衣)

당의는 명부의 소례복으로 궁(宮)에서는 상복(常服)으로 착용하였다.

궁중 발기를 살펴보면 소례복인 당의도 특별한 의례용 예복으로 착용될 때는 내작을 별도로 만들어 함께 붙여 착용한 기록이 있다³²⁾. 이러한 당의는 가례나 길례 그리고 비빈의 관례 시 착용되었고, 모두 직금 당의인 것으로 보아 상당히 격이 높은 당의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작이 구비된 당의는 조선시대 왕실의 높은 신분의 여인이 중요한 예식에 착용한 예복용 당의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당의 유물을 살펴보면 내작이 있는 두벌당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총12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두벌당은 다시 네겹당의와 두겹당의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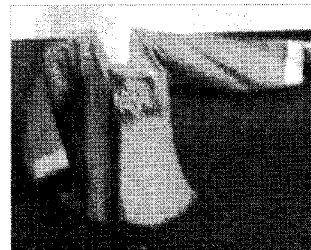
네겹당의는 겹당의 2점을 한데 끼워 한 벌을 구성하는 것으로 유물 중 〈표 6-1,3,5~7,10,11〉 등이 해당된다. 겹당의는 녹색 겹감에 홍색 안감을, 내작당의는 겹과 안을 모두 홍색으로 제작하였다. 청연군주의 당의와 같이 내작당의의 길은 운문단으로 만들고 소매는 명주를 사용하여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한 경우도 있다.³³⁾

청연군주의 당의가 내작당의의 겹감을 운문단으로 사용한 반면, 〈표 4-11〉의 영왕비 직금당의의 경우 내작당의의 겹감을 겹당의의 안감과 같은 주(紬)를 사용하고 오히려 안감을 공단(貢緞)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두벌을 합하였을 때 안감의 드러나는 부분이 공단이 되도록 구성되었다.³⁴⁾

두겹당의는 홀당의 2점으로 구성된 것으로 유물 중 〈표 6-2,4,8,9,12〉가 해당된다. 대부분 소재가 사(紗)인 것을 통해 춘추절기용 예복당의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두벌당의는 거들지로 수구 부분을 연결하거나 〈표 6-1,3~5〉 진동선이나 도련에 바느질을 하여 〈표 6-3,4,8~11〉 마치 한 벌처럼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의왕비 당의의 경우 도련을 정교하고 곱게 말아 감쳐서 마치 한 벌의 겹당의로 오인할 수도 있다 한다.³⁵⁾ 이는 합봉의 한 과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고름이 완형으로 전해지고 있는 〈표 4-9~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름은 삼작고름이다. 착장 시 겹당의의 긴 고름과 내작의 긴 고름을 함께 겹당의의 짧은 고름과 매고³⁶⁾ 안고름도 겹·안의 안깃에 달린 고름 2개와 겹당의의 겨드랑이에 하나 달린 고름과 함께 매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영왕비의 당의의 경우 겹고름 두 개의 중간부분을 한 번 징구어 고름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³⁷⁾



〈그림 11〉 겹당의 부록클릭박물관소장

<표 5> 원삼 유물

번호	사 진	색		특 정	착용자	생몰년도	소 장 처	출 처
		겉	안					
1		?	?	겉안 분리	안동권씨	1644-1722	경기도박물관	전주이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서 p. 34
2		?	x	겉감만 있음	해평윤씨	1660-1701	석주선기념박물관	환생 p. 31
3		녹	홍	배래 4겹 후손보수과정증발생	이단하 처	1680	이종후 소장	문화재대관 p. 126
4		?	?	겉안 분리	청송심씨	1683-1718	충북대학교 박물관	본인조사
5		?	?	겉안 분리	한산이씨	1712-1772	충북대학교 박물관	본인조사
6		녹	홍	겉안 분리	화순옹주	1720-1758	고려대학교 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 63
7		?	?	겉안 분리 깃 하나 동정 달림	전주이씨	1722-1792	충북대학교 박물관	본인조사
8		녹	홍	겉안 분리	조대비 하사품	1808-189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대관 p. 65
9		녹	홍	배래 4겹	김병기 처	1818-1875	고려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대관 p. 130
10		?	?	배래 4겹	김병국일가	1819-1933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 보고서 p. 303
11		?	?	겹바느질 깃 하나 동정 달림	김병국일가	1819-1933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 보고서 p. 304
12		?	?	겹바느질 활옷 깃	김병국일가	1819-1933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분묘조사발굴 보고서 p. 304
13		녹	x	겉감만 있음 겉안 분리	덕온공주	1822-1844	석주선기념박물관	본인조사
14		녹	홍	겉안 분리	의왕비	1878-1964	경운박물관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p. 213
15		자	홍	겉안 분리	광화당	1887-1970	세종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대관 p. 42
16		홍	황	겉안 분리	순정효황후	1906	세종대학 박물관	문화재대관 p. 36
17		황	홍	배래 4겹	순정효황후	1919	세종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대관 p. 38
18		홍	황	겹바느질	영왕비	1901-1989	고궁박물관	조선후기궁중복식 p. 52

20세기 이후, 왕실 행사를 위한 2벌 당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겹당이에 삼작고름을 달아 마치 최고의 예복과 같이 보이는 당의로 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11>의 당의는 브루클린박물관 소장품으로 19세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두색 사에 홍색 안감을 대었으며 삼작의 자주색 고름과 거들지 및 단봉

황의 흉배를 달았다³⁸⁾. 혼례식 때 화동이 입던 당의로 여겨지며, 합봉의 상징으로 삼작고름이 달려있다.

<표 6> 두벌 당의 유물

번호	사 진	홀/겹	색		고름	착용자	생물년도	소 장 처	출 처
			겉	안					
1		겹	?	?	긴고름 2개	정송심씨	1683-1718	충북대학교 박물관	본인조사 거들지로 연결 봉황흉배
2		홀	?	?	겉고름 한 쌍	정송심씨	1683-1718	충북대학교 박물관	본인조사
3		겹	연두 홍	홍 홍	긴고름 1개	화순옹주	1720-1758	고려대학교 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 73 거들지로 연결 진동선, 도련 징금, 금박
4		홀	연두	홍	겉고름 한 쌍	화순옹주	1720-1758	고려대학교 박물관	복식유명품도록 p. 75 거들지로 연결 진동선, 도련 징금, 금박
5		겹	?	?	x	청연군주	1754-1821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본인조사 거들지로 연결
6		겹	?	?	x	미상	18세기?	세종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대관 p. 23
7		겹	녹색	홍색	긴고름 1개	미상	18세기?	황해도 출토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V p. 118. 흉배
8		홀	연두	홍	겉고름 한 쌍	미상	19세기?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명선 하 p. 134 도련 고운 감침질, 금박
9		홀	연두	홍	삼작	의왕비	1878-1964	경운박물관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 새 p. 205 도련 고운 감침질, 금박, 보
10		겹	연두 홍	홍 홍	삼작	순정효황후	1894-1966	세종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대관 p. 79 금박, 보, 도련 징금
11		겹	연두 홍	홍 홍	삼작	영왕비	1901-1989	국립 고궁박물관	조선후기궁중복식 p. 77 징금, 도련 징금
12		홀	연두	홍	삼작	영왕비	1901-1989	국립 고궁박물관	조선후기궁중복식 p. 82 금박

Ⅲ. 합봉의(合縫衣)의 특징

1. 시각적 중착 효과

1) 깃의 이중성

합봉한 복식에 표현된 깃의 이중성은 재복과 같이 깃에 별도로 부착하던 장신구를 합봉한 경우와 단령, 원삼과 같이 깃을 겹 안에 각각 부착하여 2중으로 제작한 것이 있다.

재복의 경우 깃 위에 방심곡령을 부착하므로 깃과 곡령의 만남이 마치 단령의 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령의 경우 안감에는 직령의 깃이 겹감에는 단령의 깃이 달려있어 마치 직령과 단령을 함께 착용한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며, 원삼의 경우도 안감에는 직령의 깃이, 겹감에는 원삼깃이라고 하는 등근모양의 대금형 깃이 달려있어 내작을 함께 착용한 듯한 효과가 있다.

2) 소매

구군복의 경우 전복에 소매를 달아 합봉하였다. 그런데 동다리 소매의 특징인 황색과 홍색의 배색을 그대로 재현하여 전복 안에 동다리를 받쳐 입은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 점만 착용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며 가벼우며 움직임이 용이하다.

3) 삼작고름

삼작고름³⁹⁾은 겹으로 드러난 고름이 셋인 고름으로 둘은 겹고름의 색이고 긴 고름 하나는 내작 또는 안감의 고름색이다. 매는 방법은 겹옷의 겹설과 내작의 겹설에 달려있는 옷고름 두 개와 겹옷 안설에 달려있는 옷고름 하나로 함께 고름을 매며, 속고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묶게 되어있다.

이것은 중착(重着)하므로 고름의 매듭이 여러 개가 생겨 가슴부분이 볼록해지고 매무새가 거북스러워 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두 개의 포를 한 벌처럼 여며서 여러 점 착용하여도 걸들지 않고 단정한 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 복식을 합봉하면서 내작의 고름을 겹옷에 함께 부착하여 겹설의 고름이 두 개 달리게 되었다.

복식 중 합봉으로 인한 삼작고름이 나타난 것은 단령과 당의가 있다.

4) 기타

개화기의 재복과 조복의 부속품인 폐슬, 대대, 중단, 상 등을 합봉해 놓은 유물이 있었다. 이렇듯 부가적으로 걸치는 부속품들을 합봉하게 되면 착용 과정이 생략되므로 간편하며 장신구들이 고정되어있어 매무새가 안정적인 이점이 있다.

2. 착용 시 간편함

포를 중착하는 경우 착장절차가 복잡하며 여러 점을 착용하여 거북스럽고 중량감이 있다. 그리고 움직임 때 복식이 이탈되어 매무새가 흐트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합봉한 의복은 착장과정이 줄어들어 입을 때 편하며, 동작을 하면서 발생하는 뒤틀림이나 어긋남 없이 안정감 있고 단정한 자세가 가능하다. 또한 가벼우며 고름이나 솔기가 중첩되어 불편하거나 옷이 걸도는 것이 없이 쾌적한 의생활이 가능하였다.

3. 실리와 명분 추구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에서 본질적인 예(禮)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관정제(衣冠整齊), 즉 밖으로 드러난 옷매무새를 반듯이 하므로 마음의 경건함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더 나아가 체면이나 체통을 지키기 위해 비합리적이라도 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였으며 외양을 더 중시하는 허례적인 요소도 강하였다.

남자의 경우 포를 여러 점 겹쳐 입으므로, 여자는 저고리와 속옷을 겹겹이 착용하므로 예와 양반으로서 품위를 지켰으며 여름철 무더위도 예의가 될 수 없었다. 특히 관복의 경우 포를 여러 벌 갖추어 착용하였고, 소매를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만들어 시대 정신과 함께 왕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였다.

이렇듯 여러 벌을 겹쳐 입었던 중착법이 조선후기

복식의 합봉현상을 통해 한 벌을 착용하면서도 마치 여러 벌을 입은 듯, 경편하면서도 권위와 체통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었다.

IV. 합봉현상의 배경

1. 실학사상의 발달

조선 후기 양명학(陽明學), 서학(西學), 고증학(考證學) 등의 새로운 학풍이 17세기를 전후하여 전래되었다. 유학자들이 정통주의적 입장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사상이나 문화 형태에 대해 극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견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학파는 새로운 질서와 가능성을 탐색하여 서학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철학적 근거를 재정립하고 나아가 전통기반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새로운 입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⁴⁰⁾.

실학파의 기본입장은 끊임없이 그 사회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개방적 태도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 의지는 복식분야에도 나타났다.

특히 북학파는 걸치레나 체통을 중시하던 허례적 면모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여 내면을 중시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보다 기능적이고 실용적 의생활을 이루기 위하여 복식의 개량을 제안하므로 허식을 따르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⁴¹⁾

이러한 실학의 발달은 복식을 합봉하였을 때 고정 관념에서 발행될 거부감을 감소시켰으며 복잡하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면을 추구하는 의식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탈사대주의

1636년에 시작된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청(淸)에 굴복하고 군신의 의리를 맺게 되었다. 1644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되자 조선은 명나라에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대명리론을 제기하였으며, 비록 조선이 무력에 의해 청에 굴복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들 오랑캐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이 지배적이었다.

복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복식에 대해 맹목적으로 존중하며 따랐던 조선은 청조(淸朝)가 들어선 후 오랑캐인 청나라 복식을 무시하고 명의 복식제도를 고수하므로 탈사대주의적 태도를 선택하였다. 더 이상 중국복식의 영향권 안에 속하지 않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것을 선택하므로 자주적 성향이 강하여져 조선 후기 복식의 국속화 현상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가 이미 멸망하여 명의 유제를 따르는 것에도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양란에 의해 소실된 부분에 대한 보충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국속(國俗)에 맞게 대체하는 방법이 추진되었다. 특히 명으로부터 사여(賜與)받아 착용하였던 궁중예복들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계복, 조복, 단령, 원삼 등과 같은 예복들이 합봉을 통해 착용방식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3. 근대화와의 연계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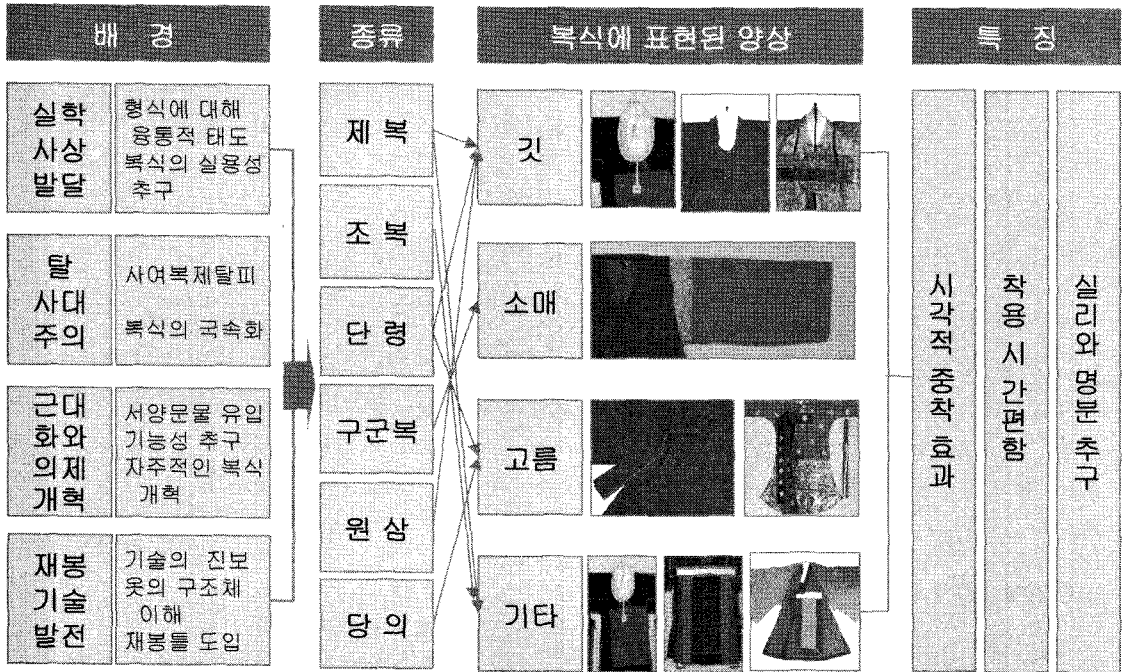
고종 13년(1876) 병자수호조약을 맺은 후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었다. 유학자들은 위정척사사상⁴²⁾을 내세워 일본을 포함한 서양 문물 수용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조선의 근대화로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복식 또한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 맞추어 간편하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형태로의 변화가 커짐에 따라 고종 21년(1884) 윤 5월 24일 갑신 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과 10년 후인 31년(1894) 갑오의제개혁을 통하여 의복 개혁을 단행하였다.

사대주의와 예·체면중시의 사조(思潮)에 따른 불합리한 복식제도로부터 탈피하여 간편하고 검소한 양식의 복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당시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정세의 변화와 평등주의에 적합한 것이었다.

조선의 관복과 사복은 고종의 개혁의지와 근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간편한 양식으로 변화하였다. 실용성과 검약정신을 바탕으로 의복도 검소하고 간편한 양식을 제시하였다.

갑신 의제개혁 시에는 계급주의적 사고와 인식의 부족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신분제의 철폐로 평등의식이 신장되었고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갑오 의제개혁



〈그림 11〉 조선 후기 합봉현상의 원인과 특징

시에는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재봉기술의 발전

조선시대 여성들의 바느질 솜씨는 부녀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 중 하나였다. 출도복식을 살펴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바느질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홑옷을 각각 지어 감침질하여 붙이는 것 보다 두 점을 합봉하여 겹옷으로 제작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함께 구조체(構造體)에 대한 4차원적 이해가 필요하다.⁴³⁾ 특히 옷감 4겹을 한꺼번에 바느질하는 경우, 만일 실수를 하게 되면 창구멍을 통해 뒤집었을 때 뒤틀려 제 모양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당시 진보되었던 재봉기술과 옷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에 합봉이 가능하였고 단순한 합봉을 초월하여 두벌을 입은 것 같은 기교를 가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개화기에 도입된 재봉틀도 재봉기술 발달에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에 재봉틀이 들어온 시기는 확실한 기록을 찾기 어려우나, 1877년 김용원(金鏞元, 김규식의 부친)이 일본에서 서양 사람에게 구입해 들여왔다는 주장⁴⁴⁾이 있으며 1900년 제국신문에 광고가 있는 것⁴⁵⁾으로 보아 개화기부터 수입되어 1900년대 이후에는 상류층 가정을 중심으로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 예복에 나타난 합봉(合縫) 현상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12〉에 도식으로 정리하였다.

1. 합봉현상은 조선시대 복식의 특징 중 하나인 중착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겹쳐입음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착안된 것으로 보인다.

2. 합봉현상이 나타난 복식은 평상복 보다는 내작을 함께 착용하였던 예복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남자의 경우 제복, 조복, 단령, 구군복 등 공복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원삼(圓衫), 당의(唐衣) 등의 예복에서 발견할 후 있었다.
3. 합봉된 복식을 살펴보면 깃, 소매, 삼작고름과 기타 장신구들의 부착 등에서 시각적으로 중첩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로서 한 벌을 착용하면서도 마치 여러 벌 착용한 효과가 있으며, 또한 입을 때 간단하면서도 권위와 체통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었다.
4. 합봉을 통해 조선 후기 간편하고 실용적인 복식 문화로 발전하여 갔다. 실학사상과 명나라 멸망으로부터 시작된 탈사대주의, 그리고 개화와 의제개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여기에 발달된 재봉기술이 뒷받침되어 합봉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실물조사에 비하여 2차적 자료 활용 빈도가 높으므로 구체적 고찰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 2) 유희경, 김문자 (1999).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11.
- 3) 「國朝五禮儀」, 「祭器樂器都監儀軌」, 「宗廟儀軌」, 「社稷署儀軌」, 「景慕宮儀軌」, 「大韓禮典」 등
- 4)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복식류명품도록*.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p. 230.
- 5) 최영선 (2004).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08.
- 6) 문헌에 나타난 폐슬 도실을 보면 고리(世宗五禮儀, 國朝五禮儀, 宗廟儀軌, 春官通考, 社稷署儀軌, 景慕宮儀, 太學志, 大韓禮典)나 끈(祭器樂器都監儀軌)이 있어 대에 연결하여 착용하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책*, pp. 118~119 참조.
- 7) 「高宗實錄」卷 25 高宗 25年 10月 丙午 …蔽膝變爲蔽之類…
- 8)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명선 중*. 서울: 석주선기념박물관, p. 81.
- 9)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앞의 책*, p. 230.
- 10) 「朝鮮王朝實錄」世宗 8年 2月 群臣凡大朝會 服朝服 一品 … 赤羅衣 白紗中單 俱用青飾領緣 赤羅裳青緣 大帶赤白二色絹 白襪黑履角簪 … 同一品 … 五六品冠二梁 革帶用銅 佩用樂玉 綬用

黃綠赤三色絲織成 練鵝花錦 下結青絲網 綬環 二用銅笏用槐木

- 11) 의, 상, 후수, 폐슬, 대대 등
- 12) 의, 상, 후수, 폐슬, 대대 등
장정운 (2004).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2.
- 13) 의, 중단, 상, 후수, 폐슬, 폐육 등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앞의 책*, pp. 6-7 참조.
- 14) 적초의, 청초의, 폐슬, 훈상, 후수, 금관, 서대, 폐육, 홀 등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앞의 책*, p. 81 참조.
- 15) 의 2, 중단 3, 상 1(부착), 후수 1, 홀 2 등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주요민속자료 2. 복식 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 187 참조.
- 16) 장정운 (2004). *앞의 책*, p. 108.
- 17) *위의 책*.
- 18) 문화재청 (2006). *앞의 책*, pp. 187-188.
- 19) 「國朝五禮儀」(1474) 士, 喪禮, 襲, 袞袍袷帖裏次 上庶人, 團領袷帖裏次…
- 20) 洪係江 유물의 경우 답호의 동정은 약 10cm로 넓은 반면, 직령의 동정은 4.5cm 정도였다. 따라서 단령의 내작으로 생각하기에 동정의 넓이가 좁다.
- 21) 「朝鮮王朝實錄」世宗 28年 5月 壬辰 庶人各司諸員隊長隊副外方H守兩班及工商踐隸 除團領通着帖裏與腋皺衣直領衣
- 22) 송미경 (2007). 김확(1572~1633)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 *복식*, 57(7), p. 102.
- 23)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앞의 책*, p. 67. 참조
- 24)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앞의 책*, p. 233.
- 25) 고려대학교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
- 26)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품
- 27) 경기대학교박물관 소장품
- 28) 수원능행반차도, 圓行乙卯整理所契屏, 칠중철인후가례 도감의개반차도, 칠중어진, 壯勇營提圖, 통신사복식도, 봉사도 등
- 29)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협수(경기도박물관), 자료검색일 2007. 5. 28, 자료출처 [http://211.57.113.105/sch/p_museum/full.cgi?v_kw_str=D2:DL+AND+\(협수\)&v_db_str=&v_cmp_str=&v_db=1&v_doc_no=00117402&v_disp_type=3&v_list=1](http://211.57.113.105/sch/p_museum/full.cgi?v_kw_str=D2:DL+AND+(협수)&v_db_str=&v_cmp_str=&v_db=1&v_doc_no=00117402&v_disp_type=3&v_list=1)
- 30) 「朝鮮王朝實錄」高宗 21年 閏5月 25
- 31) 문화재청 (2006). *앞의 책*, p. 126.
- 32) 권혜진 (2001). *당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
- 33) 본인 조사 (2000년 4월)
- 34) 본인 조사 (2008년 11월 20일)
- 35) 경인박물관 학예사 박경자 증언
- 36) 구남옥 (2001). *조선시대 복식 변천에 나타난 동조현 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22.
- 37) 본인 조사 (2008년 11월 20일)
- 38) 윤은재, 손경자 (1994). 해외에 소장된 우리나라 복식의 현황 연구 I. *복식*, 23, p. 90.
- 39) 삼작은 삼작저고리, 삼작노리개와 같이 셋이 한 쌍으

- 로 구성된 것에 붙는 명칭이므로 본인의 박사학위논문(2001)에서 이미 '삼작고름'이라 명한바 있다.
- 40) 이문주 (1998.11.13), 朝鮮 後期の 實學思想, 동양철학산책, 자료검색일 2007. 6. 16, 자료출처 <http://web.skku.edu/~sulhang1/majer/ma5/ko14.htm>
 - 41) 정혜경 (1994),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 II, 복식, 18(1), p. 107.
 - 42) 성리학에 근본을 두고 다른 이질적 문화를 배척하는 사상
 - 43) 박미자 (1996), *한복에 나타난 임상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0 참조.
 - 44) 이광민 (2005. 6. 28), 민속품을 통해 본 경기도 이야기, 경기박물관 특별전-경기도사람, 경기도이야기, 경기도박물관, 자료검색일 2007. 5. 30, 자료출처 <http://www.pabal21.com/news/print.php?idxno=198>
 - 4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유물검색, 재봉틀, 자료검색일 2007. 6. 14, 자료출처 http://www.nfm.go.kr/data/full.cgi?v_kw_str=&v_db=1&v_doc_no=00001329&opt_s=1